

기초학문의 위기와 극복을 위한 단상



심윤종
성균관대 총장

자연의 조작을 넘어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변화시켜 인간 자체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형시켜 가고 있는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첨단 실용과학의 시대에 왜 기초학문을 말하고, 왜 기초학문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는가? 기초학문 위기의 담론들은 작금의 현실이 바로 기초학문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국가의 먼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회적 각성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흔히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고, 민족의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이 그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다. 세상에 그 어떤 나무도 뿌리 없이 줄기와 가지만 무성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건물도 튼튼한 기초공사 없이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필자 역시 대학의 경영자로서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각 대학들에서는 많은 기초학문들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연구 인력과 자원의 배분 체계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대학교육이 이렇게 응용과학과 실용과학 중심으로 변한 것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같은 '응용과학 집중과 기초과학 소외'의 교육 추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쟁력 위기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인력과 자원의 투입 체계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전략으로 재편된 탓으로 보는 것이다. 기초학문의 토대 없이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초과학의 육성 없이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대학의 경영자들이나 교육정책의 입안자들도 익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쟁력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따라서 선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에 일시적으로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

기초과학이야말로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열쇠' 라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금 이루고
그러한 합의에 충실하게 교육의 현장을 차분히 개혁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상호 상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교육 현실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것이다.

원론적 차원에서 말해 필자는 대학의 교육이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제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 실적이 뒤지고, 비용-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듯 보여도, 나라의 먼 장래와 민족의 운명에 중차대한 기초과학의 역량을 기르는 책무는 분명 대학에 있고, 대학은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초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역량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시급한 국가 경쟁력의 위기가 일정 정도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장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기초과학에 과감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핵심 기술과 경영기법에 대한 대외 의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과 분위기도 실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응용과학 중심에서 국가의 장기 발전과 번영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학문의 의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덧붙여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필자는 기초학문 출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도 기초학문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용과학은 근시적인 목적합리성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비해 격물치지의 근본적인 성찰과 탐구는 기초학문의 미덕이자 장점이다. 눈앞의 화려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닦을 줄 아는 기초학문 출신의 지도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좀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경쟁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응용과학의 실용적 가치와 투자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위기 의식을 일신하고 기초학문의 의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는 작업은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과학이야말로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열쇠' 라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러한 합의에 충실하게 교육의 현장을 차분히 개혁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상호 상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교육 현실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과학이 기초학문의 수요를 자극하고 기초학문이 응용과학의 결실을 풍부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교육 체계가 하루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인과 국민 모두가 각오와 의지를 다듬어야 할 때이다. **신학호**